

나주 SRF 갈등 파국 치달나

지역난방공사, 가동 중단 대비 손실 보전 요구
전남도·나주시 등 민관 거버넌스 해법 못 찾아

나주 고흥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가 파국으로 치달고 있다. 갈등 해결 기구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이하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달 7일 열릴 12차 거버넌스 회의를 끝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거버넌스는 30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의했던 내용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거버넌스 합의안대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를 우선 합의하고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른 각 방안에 대해 단계별로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설명이다.

파국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위원장인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과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직접 나섰다. 이는 거버넌스 인력의 분석이다.

난방공사측은 앞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를 감안, '손실 보전액을 부담할 주체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시험 가동으로 환경 유해성 여부를 측정된 뒤 그 결과에 따라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 수용성 조사(주민투표+공론회)로 폐쇄 결정이 가능한 점을 들어 향후 발생할 수천억원의 발전소 건립 비용을 누가 책임질 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게 난방공사측 요구다.

나주시와 전남도 요구로 사업에 참여해 관련 시설을 설치했는데 사업을 철회할 법적 근거 없이 폐쇄로 결정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난방공사측은 다음달 7일 열릴 12차

회의에서도 이같은 손실보전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산자부, 전남도, 나주시 등 어느 누구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대로라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거버넌스 공동위원장들이 이날 "SRF 폐쇄로 결정돼 손실 비용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가 주축이 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거버넌스 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이 없는 만큼 정부에 손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산자부조차 손실 비용을 떠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 해결이 이뤄질 지 미지수다.

이민원 거버넌스 공동위원장은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 거버넌스 주체들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나주 열병합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해 올해 1월 구성됐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맥문동꽃 보랏빛 향기 낮최고기온이 35도로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30일 오전 광주 북구 문화근린공원 인근 천치인산책로에서 시민들이 만개한 맥문동길을 따라 산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천명당 태어나는 아이 年 6명도 안된다

5월 출생아 최저 ... 1년 새 광주 14.3%·전남 5.9% 감소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 5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아이의 수가 연간 5.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월별 최저 기록을 3년 2개월 연속으로 경신했고, 혼인 건수 역시 5월 기준 가장 적었다.

통계청이 30일 공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총 2만5300명으로, 1년 전보다 2700명(9.6%) 줄었다. 이는 5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출생은 계절이나 월별로 변동성이 있어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혼인 감소와 만혼 분위기에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출생아 수는 매월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38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저기록을 새로 썼다.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13만145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7600명 감소했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

면 올해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넘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역의 경우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36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00명이 줄어 14.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전남지역은 누계 출생아 수가 48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0명이 줄었다. 감소율은 5.9%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번 추계를 통해 올해 출생아 수를 30만9000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면서 "출생아 감소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8명으로, 역시 5월 기준으로 2000년 집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5월 기준 조출생률이 5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700명(2.9%) 늘어난 2만4700명으로 집계됐다. 5월 기준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고, 이 영향으로 자연증가분(출생-사



망)은 600명에 그쳤다. 자연증가분은 2016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1만1216명이었지만, 2017년 6537명, 지난해 4000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같은 달 신고된 혼인은 2만3100건으로, 5월끼리 비교했을 때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00건(7.6%) 감소했다.

/김형호 기자 khh@연합뉴스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17곳 → 60곳 확대

2025 도시재생 계획 변경
차별화된 도시 콘텐츠 반영

광주시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기존 17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8월1일 광주시보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2016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17곳을 지정해 선도사업과 새마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4차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7기 도시재생 정책 추진 등을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

변경된 계획에는 자치구별 진단·여건 분석,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구성, 재원 조달, 기초생활 인프라 등이 담겨 있다.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암·분촌·소촌 산단과 광주송정역, 임동 일신방직 주변, 광주역 주변 등 6곳을 지정했다. 반

면, 근린재생형에 가까운 옛 국군통합병원 지역은 해제했다.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7곳,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일반근린형 21곳, 노후 주거지 정비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형 18곳,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8곳 등을 지정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활성화, 상권 회복을 위해 대인·산수·무등·말바우·송정시장 등 전통시장 11곳도 활성화 지역에 포함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뤄지지 않은 충장2구역과 동명1구역도 새롭게 포함했다.

폭염 속 분진·소음 ... 주민 '아우성' ▶6면

굿모닝 예향 - 고창 책마을 해리 ▶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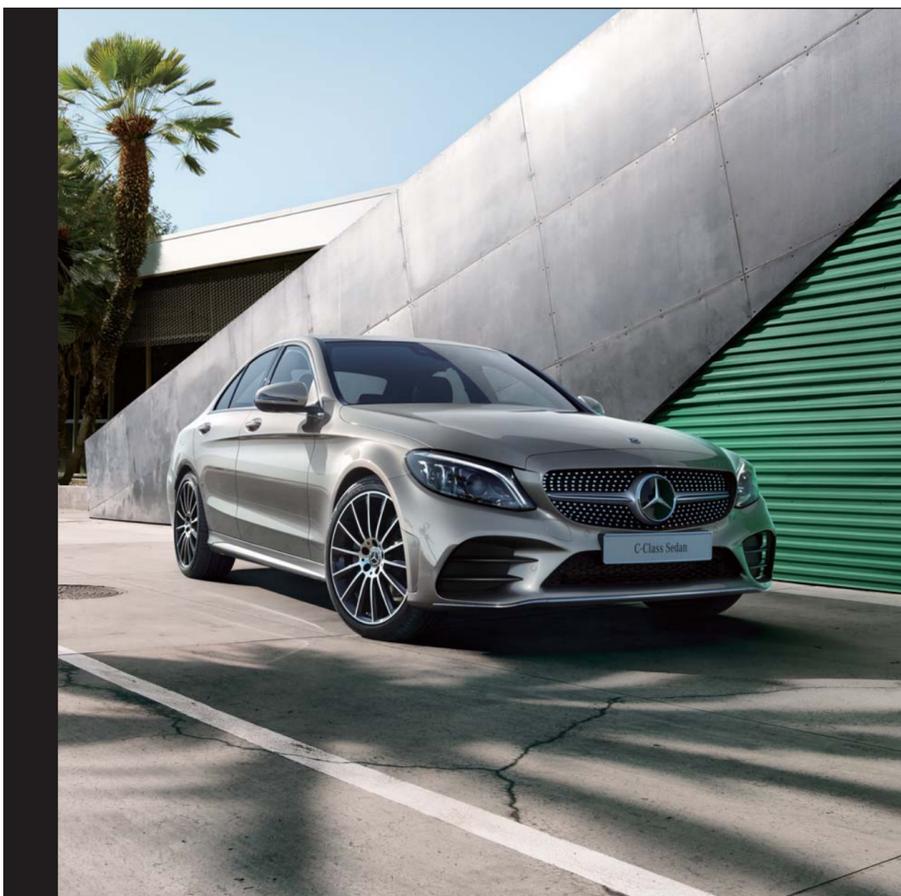
해남 대흥사 - 서산대사의 숨결 ▶18면

광주시는 주민 공청회, 전문가·건축가 자문, 시의회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계획안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활성화 지역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구는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다양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 참여와 실현 가능성 있는 차별화된 도시 콘텐츠와 역사·문화적 자원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기틀에 의해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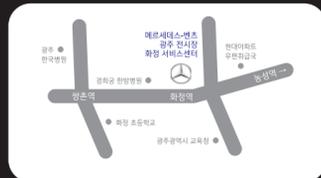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확보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